

## 유아교육분야에서의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 분석

정유리, 권귀염\*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 Analysis of Anti-Bias Education Activit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Yu-Ri Jeong, Kyee-Yum K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편견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국내의 실천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기 반편견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편견의 주제를 살펴보고, 해당 교육활동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학습의 매체나 접근법을 분석함으로써 반편견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기 반편견 교육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반편견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실천 연구 12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기적으로는 2000년-2004년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53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단일한 편견주제를 다룬 교육활동 연구들이 64.8%로 두 가지 이상의 편견주제를 다중으로 다룬 교육활동 연구보다 많았다. 한 가지의 편견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의 주제로는 장애관련 편견과 젠더관련 편견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편견주제를 함께 다룬 다중편견주제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사이의 편견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외모, 가족, 장애, 젠더, 인종, 계층, 문화와 관련한 편견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편견 교육에 사용된 교수-학습 매체 및 방법은 동화를 활용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 60.8%로 나타났고, 통합적 환경이 그 뒤를 이어 14.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아기 반편견 교육의 주제 범위 체계화, 접근 방법 다양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ti-bias educa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in Korea by reviewing related research. Focusing on the themes of biases and teaching medium/methods applied in the research, it tends to enhance general understanding about anti-bias educa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25 research papers published from 1995- 2017 dealing with anti-bias activities/programs for young children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period of research, almost half of the studies (53 studies) were conducted from 2000- 2004. Regarding the themes of biases covered in the education activities, single bias related activities included 64.8% of the total studies reviewed, and the main themes of bias included disability and gender. In studies that included multiple bias themes, more than half investigated from three to five different bias themes, including appearance, family, disability, gender, race, and culture. The most common teaching medium/method applied in activities was children's story, accounting for 60.8% of all activities. The following was utilizing inclusive environment, which was 14.4% of the activ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would help systematize the contents of anti-bias education and develop diverse teaching-learning approaches.

**Keywords** : Anti-Bias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judice, Review of Research, Young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Kyee-Yum Kwon (Chonnam National Univ.)

Tel: +82-62-530-2362 email: kwon0301@jnu.ac.kr

Received November 21, 2017

Revised December 7,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 반편견 교육의 중요성은 다변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나와는 다른 생활양식이나 습관, 가치, 사고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에 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과거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확고한 기준과 절대적 진리가 강조되었다면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1].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기 위한 평화적이고 상호존중의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다른 타자(他者)들의 문화, 생활양식, 가치, 관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소통과 공존의 기술을 습득하며,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이’나 ‘다름’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등이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전파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각종 극단적인 편견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객관적인 사실로 포장되어 재생산된다[2]. 더구나 각종 편견이 실제 사회에서 강력 범위를 촉발시키기도 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계기가 된 사건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혐오 문제에 대한 각성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종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연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편견들이 사회 도처에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들을 차별하고 차별받기도 하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한 것이다[3].

타자(他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기보다 편견을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움직임은 개인 및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개인은 자신의 관점을 여러 가지 가능한 시각 중의 하나

로 보기 보다는 절대적 판별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배척하고 점점 더 폐쇄된 시각 안에 머무르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타자(他者)에 대해 특정 이미지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반면 열린 소통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소모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편견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존재 양식을 혼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편견의 형성 및 확산을 막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반편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편견 교육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그러한 차이에 기초한 전형적 사고(stereotypic thinking)를 거부하며, 모든 종류의 편견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가치 내재적 교육이다[4]. 즉,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실질을 추구한다. 이에 반편견 교육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교육이며, 나의 관점을 점검하는 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외모 등의 신체적 차이, 의복, 사용하는 언어, 도구, 특정 행위,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 하여 인식한다. 그룹화와 구분 짓기는 유아들이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 전략인 것이다[5]. 따라서 아주 어린 유아들이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게 된다.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은 만 3세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이나 인종,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을 형성하고 표출하기도 한다[6, 7]. 김희영, 김경숙의 연구[8]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들의 경우에도 만 4-5세에 이미 성역할, 능력, 장애, 가족 구성, 문화 등에 대해 편견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듯 어린 연령의 유아들조차 이미 편견을 형성, 표출한다는 사실은 반편견 교육이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실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편견 교육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특정 집단과 관련한 편견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반편견 교육, 다양한 가족 반편견 교육, 반편견 입양 교육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역시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입양홍보회 등으로 다양하다. 즉, 관심

을 두는 이슈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편견주제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창의, 인성 교육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됨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범위, 접근 방법이 비교적 세부화 되어 확립된 것과 대조적으로, 반편견 교육은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나 통합교육이 각종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강조해 온 다문화교육은 민족이나 인종에 따른 문화, 생활상의 차이 등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포괄적인 반편견 교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통합교육 경향 역시 분리교육과의 상대적 교육 효율성이나 장애 아동의 교육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장애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편견 교육과는 차이가 존재한다[9].

결국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포괄적인 반편견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범위와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합의, 정리된 내용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반편견 교육 관련 연구 및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제의 연구들을 묶어 연구의 형태나 주제, 시기별 경향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반편견 교육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 유아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진 반편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 동향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10]. 해당 연구에서는 반편견 교육과 관련하여 인식 조사나 이론적인 기초 연구보다는 실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관련 실천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교육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반편견 교육이 포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문화, 장애문제, 젠더 인식, 가족 형태, 빈부격차, 외모, 연령, 지역, 직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반편견 교육 실천연구의 비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의 반편견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편견주제들의 비중이나 접근 방법을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반편견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천연구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반편견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 주제와

접근 방법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 실천연구들이 어떤 반편견 주제를 단독으로 혹은 다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교수-학습 매체/접근법은 어떤 것들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수행될 연구나 교육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 연구방법

### 1.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유아교육 분야의 반편견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포함된 연구로, 학위논문 111편, 학술지 논문 14편, 총 125편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에서 키워드 ‘반편견’, ‘반편견 교육’, ‘반편견 활동’, ‘반편견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유아’, ‘유아교육’으로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자들은 검색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제 반편견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연구만을 분류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저자가 수행한 같은 연구가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는 원저인 학위论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관련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1995년부터 본 연구가 시도된 2017년까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총 125편이었다.

### 1.2.2 자료 분석 및 타당도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들은 연구시기, 연구 내용이 된 편견주제(단일/다중주제, 세부 편견주제 내용), 교육활동의 주요 매체/교수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분석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반편견 교육 관련 연구가 최초 수행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시기별 연구동향 분석에서 5년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반편견 교육 연구동향 선행연구[10]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가장 최근의 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 연구가 다루고 있는 편견주제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연구들을 단일/다중

편견주제로 나눈 후 다시 각 연구가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편견의 주제를 살펴보고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 인종, 다문화, 젠더, 장애, 외모 등 다양한 편견주제 중 한 가지 주제만을 초점을 한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 연구는 단일편견주제로, 2가지 이상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은 다중편견주제로 분류하였다. 다중편견주제의 연구들의 경우 3-5가지의 주제를 다른 연구들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가지 주제, 3-5가지 주제, 6가지 이상의 주제로 나누었다.

그 후 연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편견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모든 편견주제들에 따라 분류하였다. 세부 편견주제들은 단일편견주제 연구에서는 가족, 문화, 젠더, 인종, 외모, 장애의 여섯 가지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의 편견주제들을 함께 다루는 다중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들에서는 단일편견주제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계층, 능력, 동물, 성적 지향, 연령, 음식, 성격특성, 종교, 지역, 직업, 통일을 포함하여 총 17가지가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활동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교수매체나 대표적인 교수법을 연구별로 메모한 후 이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된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은 동극, 역할극, 동요, 동화, 미술, 부모참여, 영상, 이야기 짓기, 인형, 전통놀이, 체험, 통합적 환경의 12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반편견 교육활동의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을 유사한 것끼리 묶지 않고 활용된 12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교육활동 연구를 분류하였다.

이렇게 선정, 정리된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인 교육활동 연구 총 125편을 연구시기별 동향, 단일/다중 편견주제의 비교, 단일편견주제 내용 분석, 다중편견주제 내용분석,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에 따른 분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반편견 교육의 내용 범위 및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분석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들에 해당 코드들을 부여한 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타당도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 및 기준이 확정된 후 유아교육 박사과정 학생 2인에게 분류를 의뢰, 모호한 부분들을 재정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연구자들 간에도 교차분석,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반편견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실천연구(이하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로 통칭함) 125편의 시기별 동향, 편견주제에 따른 분류 및 세부적 내용,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1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의 시기별 동향

유아교육분야에서 1995년 이후 수행된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 125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가 수행된 시기별 동향은 아래의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최초의 관련 연구는 1995년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었고, 1999년까지 총 7편(5.6%)의 교육활동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00년-2004년 사이에 전체 연구 편수인 125편의 절반에 가까운 53편(42.4%)으로 연구수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2009년에는 37편(29.6%), 2010년-2014년에는 19편(15.2%), 2015년-2017년에는 9편(7.2%)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했을 때 111편(88.8%)이 학위논문으로 수행된 반면, 학술지 논문은 14편(11.2%)만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편견 교육활동의 시도가 주로 학위논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각각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 역시 2000년-2004년으로 전체 교육활동 연구의 경향성과 일치하였다.

Table 1. Periodic changes of the research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
Thesis	4	47	35	16	9	111 (88.8)
Journal article	3	6	2	3	0	14 (11.2)
All (%)	7 (5.6)	53 (42.4)	37 (29.6)	19 (15.2)	9 (7.2)	125 (100)

## 2.2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의 편견주제 동향

유아기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들에서 다루는 편견주제들의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의 편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와 각 연구들이 다루는 세부적인 편견 주제는 무엇인지에 따라 분석되었다.

### 2.2.1 단일편견주제/다중편견주제의 동향

우선 해당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편견 주제가 단일한지 두 가지 이상인지에 따라 단일편견주제와 다중편견주제로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한 가지 종류의 편견에 초점을 둔 단일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들이 81편(64.8%)으로 두 가지 이상의 편견주제를 다룬 다중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 44편(35.2%)보다 많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봐도 2010년-2014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단일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2014년에는 편수의 차이가 한 편으로 줄었으나, 그 외의 모든 시기에는 단일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가 다중편견주제의 연구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많이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2. Single bias topic vs. Multiple bias topics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
Single bias	5	35	26	9	6	81 (64.8)
Multiple biases	2	18	11	10	3	44 (35.2)
All (%)	7 (5.6)	53 (42.4)	37 (29.6)	19 (15.2)	9 (7.2)	125 (100)

다중편견주제의 교육활동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편견주제의 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총 44편의 다중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 중 절반 이상인 24편(54.6%)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사이의 편견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여섯 가지 이상의 편견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경우도 17편(38.6%)에 달했다. 아래의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대 12가지 종류의 편견주제를 다룬 연구도 수행되었다. 시기별로는 3-5가지 주제를 다룬 경우와 6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룬 경우 모두 동일하게 2000년-2004년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2005년-2009년, 2010년-2014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Number of multiple bias topics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
2	0	0	1	1	1	3 (6.8)
3 to 5	2	11	7	3	2	24 (54.6)
more than 6	0	7	3	6	0	17 (38.6)
All (%)	2 (4.5)	18 (41)	11 (25)	10 (22.7)	3 (6.8)	44 (100)

### 2.2.2 단일편견주제 중 세부주제의 동향

단일편견주제의 교육활동 연구 주제로는 가족, 문화, 외모, 인종, 장애, 젠더의 여섯 가지가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를 보면 그 중 장애관련 편견이 51편(62.9%)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주제는 젠더로 16편(19.8%)이 수행되었다. 그 외 외모관련 편견이 5편(6.2%), 가족, 문화, 인종관련 편견이 각각 3편(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장애관련 편견이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매 시기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젠더관련 편견은 2009년 이후 단일편견주제 연구로는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Theme of single bias topic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
family	0	2	0	1	0	3 (3.7)
culture	1	0	0	1	1	3 (3.7)
appearance	0	3	1	0	1	5 (6.2)
race	1	1	0	0	1	3 (3.7)
disability	0	18	23	7	3	51 (62.9)
gender	3	11	2	0	0	16 (19.8)
All (%)	5 (6.2)	35 (43.2)	26 (32.1)	9 (11.1)	6 (7.4)	81 (100)

### 2.2.3 다중편견주제 중 세부주제의 동향

여러 종류의 편견주제를 함께 다룬 다중편견주제의 교육활동 연구 44편이 다루고 있는 편견주제들은 아래의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7가지였다.

**Table 5.** Theme of multiple bias topics 1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
1.Family	2	11	7	8	2	30 (68.2)
2.Class	1	8	6	8	2	25 (56.8)
3.Ability	0	9	3	3	1	16 (36.4)
4.Animal	0	1	0	0	0	1 (2.3)
5.Culture	1	9	5	3	1	19 (43.2)
6.Character	0	1	0	0	0	1 (2.3)
7.Sexuality	0	1	0	0	0	1 (2.3)
8.Age	0	9	1	2	0	12 (27.3)
9.Appearance	2	13	8	9	2	34 (77.3)
10.Food	0	1	0	0	0	1 (2.3)
11.Race	1	11	7	8	1	28 (63.6)
12.Disability	2	9	9	7	1	28 (63.6)
13.Gender	0	16	8	4	0	28 (63.6)
14.Religion	0	1	0	0	0	1 (2.3)
15.Area	0	2	0	0	0	2 (4.5)
16.Job	0	1	0	0	0	1 (2.3)
17.Unification of nation	0	1	0	0	0	1 (2.3)
All (%)	44 (100)					

총 17가지의 주제 중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편견주제는 모두 여섯 가지로, 외모(총 44편 중 34편, 77.3%), 가족(30편, 68.2%), 인종(28편, 63.6%), 장애(28편, 63.6%), 젠더(28편, 63.6%), 계층(25편, 56.8%)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한 편 정도에서만 다뤄진 소수 주제는 동물, 성격, 성적지향, 음식, 종교, 직업, 통일관련 편견이었다. 시기별로는 절반 이상의 교육활동 연구에서 다뤄진 여섯 가지 핵심 주제 중 젠더를 제외한 모든 주제들이 모든 시기에 나타나고 있었다. 젠더의 경우 2000년 이전과 2015년 이후에 다중편견주제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젠더는 단일편견주제 연구에서도 2009년 이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바, 젠더 관련 편견 연구는 단일/다중편견주제 연구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의 세부 주제들을 하나의 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숫자별로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수행된 3-5가지 편견 주제 연구들에서는 외모, 장애, 가족, 인종, 젠더, 계층 관련 편견을 10편 이상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가지 이상, 매우 다양한 편견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교육활동 연구들 중 10편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외모, 가족, 계층, 젠더, 인종, 문화, 능력, 장애 관련 편견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편견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장애, 능력, 외모, 인종, 젠더와 같은 주제만을 다루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중편견 주제 교육활동 연구의 경우 몇 가지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외모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Theme of multiple bias topics 2

	less than 2	3 to 5	more than 6	All(%)
1.Family	0	16	14	30(68.2)
2.Class	0	11	14	25(56.8)
3.Ability	1	5	10	16(36.4)
4.Animal	0	1	0	1(2.3)
5.Culture	0	8	11	19(43.2)
6.Character	0	1	0	1(2.3)
7.Sexuality	0	0	1	1(2.3)
8.Age	0	3	9	12(27.3)
9.Appearance	1	17	16	34(77.3)
10.Food	0	1	0	1(2.3)
11.Race	1	14	13	28(63.6)
12.Disability	2	17	10	28(63.6)
13.Gender	1	13	14	28(63.6)
14.Religion	0	0	1	1(2.3)
15.Area	0	0	2	2(4.5)
16.Job	0	0	1	1(2.3)
17.Unification of nation	0	0	1	1(2.3)
All(%)	44 (100)			

### 2.3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의 동향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에 사용된 주요 교수-학습 매체 및 교수법을 종류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125편의 교육활동 연구들이 사용한 주요 교수-학습 매체나 교수법은 무려 12가지에 달했다. 그러나 그 중 동화를 활용한 교육을 수행한 경우가 76편 (60.8%)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통합적 환경의 제공이 18편(1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다섯 편

이상의 교육활동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은 역할극, 동극, 부모참여였다. 인형활용, 이야기 짓기, 미술, 동영상, 동요, 전통놀이, 직접체험의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기별로도 동화의 활용이 모든 시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통합적 환경의 제공 역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2015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Table 7. Main teaching medium & method

	1995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7	All
1.Role play	0	2	2	1	1	6 (4.8)
2.Dramatic play	0	0	2	2	1	5 (4)
3.Children's song	0	0	0	0	1	1 (0.8)
4.Children's story	4	37	21	11	3	76 (60.8)
5.Art	0	1	1	1	0	3 (2.4)
6.Parent participation	0	1	2	2	0	5 (4)
7.Movie	0	0	1	1	0	2 (1.6)
8.Story making	1	1	1	0	0	3 (2.4)
9.Doll	0	4	0	0	0	4 (3.2)
10.Traditional play	1	0	0	0	0	1 (0.8)
11.Hands-on experience	0	0	1	0	0	1 (0.8)
12.Inclusive environment	1	7	6	4	0	18 (14.4)
All (%)						125 (100)

###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어온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 총 125편을 시기, 연구 초점인 편견 주제,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앞서 서술한 연구 결과의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95년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2010년 이후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학술지 연구로는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반편견 교육활동이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반편견 교육이 ‘반편견’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다문화 교육, 통합 교육, 성 평등 교육 등 세부 분야별로 다루어지거나 세계 시민교육, 민주 시민 교육 등 반편견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도[10]반편견 교육활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을 중심으로만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동체들이 생겨나며, 그에 따른 각종 하위문화들이 활성화 되는 등 점점 다변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11].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며 더욱더 타자(他者)에 대한 이해와 어울림의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1, 12]. 이에 따라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가진 편견의 내용과 형성 과정을 점검하고, 유아 스스로가 해당 편견들의 타당성과 그 결과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유아기 반편견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관련 교육활동 연구의 감소 추세에 대해 학계와 교육기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보다 적극적인 반편견 교육의 도입과 촉진, 방향 정립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든 다문화 교육이나 장애 통합교육 등 세부분야 위주의 접근 외에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반편견 교육의 목표, 목표, 범위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편견 주제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단일편견주제를 다루는 교육활동 연구가 다중편견주제를 다루는 교육활동 연구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편견 주제의 세부 내용에서도 단일편견주제의 경우 장애와 젠더를 제외한 다른 주제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반편견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 편견 주제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중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의 경우에도 5가지 이하의 편견 주제를 다룬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편견 주제의 세부내용 측면에서도 총 17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졌으나 주로 교육활동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외모, 가족, 인종, 장애, 젠더, 계층의 여섯 가지뿐

이다. 나머지 11가지의 주제는 대부분 1, 2편의 연구에서만 다루어졌다. 즉, 주로 다루어지는 편견 주제와 그렇지 못한 주제로 명암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연구의 초점이 되었던 편견들은 외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과 연관된 편견(외모, 인종, 장애, 젠더),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연관된 편견(가족, 인종, 장애, 젠더, 계층)인 경향이 있다. 이는 유아기의 특성인 외적 특징에 의한 구분이나 [5, 13] 교육과 사회적 이슈의 밀접한 관련성이 [14]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나 직업은 외적으로 쉽게 구분, 표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의 주제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종교 등과 관련된 편견 역시 소외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반편견 교육의 산발적인 양태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반편견 교육의 내용 범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아서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이 강조되는 반편견 주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합의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중편견주제 연구들의 다수가 5개 이하의 주제를 다루고 있던 하지만 6개 이상, 최대 12개까지의 편견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교육활동 연구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 다루기에 적절한 범위의 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모든 편견 주제들을 별도로 다루는 것도, 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편견 주제들을 유아기에 교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반편견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Ramsey [15]의 경우 인종, 경제적 계층, 문화, 젠더와 성적 지향, 장애, 등 다섯 가지 전후를 해당 내용의 범위로 제시한다. 반편견 교육과정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유아교육자인 Derman-Sparks [4]의 경우에도 문화와 언어, 인종, 가족구조, 젠더, 계층, 능력, 대표적인 휴일과 관련된 종교 등 일곱 가지 카테고리 중심으로 반편견 교육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 서구의 학자이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특성과 변화의 추세를 고려한 한국형 반편견 교육의 내용 범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편견 교육의 세부 내용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젠더 관련 편견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

연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젠더와 관련된 단일편견주제 교육활동 연구는 2009년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중편견주제 연구에서도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젠더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른 편견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젠더 관련 연구들이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단일편견주제 연구에서는 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젠더였으며, 다중편견주제 연구에서도 2015년 이전까지 총 44편의 연구 중 28편의 연구에서 젠더가 편견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성혐오범죄의 증가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성차별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3], ‘충분히’ 이루어진 교육 내용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젠더 관련 편견을 포함하여 어떤 주제의 편견이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동화를 활용한 문학적 접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동요, 미술, 영상, 놀이, 등 언어적 측면 외의 활용이 위주가 되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은 매우 드물게 활용되고 있다. 동화라는 특정 매체, 언어라는 특정 감각적 접근에 편중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화는 유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매체이다. 또한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주인공의 이야기에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어서 유아들이 편견을 느끼고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이기도 하다 [16]. 그러나 동화는 이야기의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어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Williams에 의하면 [17], 반편견 교육에서는 유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문제 사이를 중재하고 스스로 대처 방법을 사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동화의 정해진 결말은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일지라도 유아들이 열린 자세로 문제를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유아의 특성상 [18] 언어적 측면 이외에도 신체, 표현,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편견 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소



수 연구들[10, 19, 20]에서도 유아들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천적인 반편견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전달 위주의 일회적인 접근에서 탈피, 유아들의 생활 경험과 결합되어야 하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동화의 활용에만 편중된 현재의 교육활동 연구의 양상에서 보다 다양한 매체나 교수법을 실험해 보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미 동화를 활용한 반편견 교육활동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므로 동화를 기초로 하되 후속 이야기 짓기나 동극, 노래 극 등 다른 확장활동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교수법의 활용 역시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들의 시기별, 주제별,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반편견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편견 주제나 주요 교수-학습 매체/교수법도 특정한 내용과 방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반편견 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설정, 내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학습 매체/교수법 역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반편견 교육의 필요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것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검색 용어를 반편견, 반편견 교육 등으로 사용하여 반편견으로 명시하지 않은 다문화 교육, 통합교육, 성평등 교육, 세계(민주) 시민교육 등의 관련 연구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분석 대상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들이 어떤 세부 편견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각 편견 주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편견 내용까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편견 교육활동 연구들이 무엇을 편견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K. S. Yang, & H. A. Kim, "To Consider the Educational Meaning of Postmodernism: With Special Regard to Discourse and Deconstruction", *Hermeneutic Educational Practice*, vol. 8, no. 2, pp. 33-51, 2011.
- [2] K. J. Lee, "Hate Speech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vol. 17, no. 1, pp. 321-346, 2017.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7.17.1.321>
- [3] S. Jang, & W. Ryoo, "Online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Hatred: Focusing on the Cases of Ilbe and Megalia",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 16, no. 1, pp. 45-85, 2017.
- [4] L. Derman-Sparks, & J. O. Edwards, *Anti 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selves 2012*, Washington, DC: NAEYC, 2010.
- [5] J. Greenberg, "More All Gone, Empty, Full: Math Talk Everyday in Every Way", *Young Children*, vol. 67, no. 3, pp. 62-64, 2012.
- [6] K. Clark, *Prejudice and Your Child*, Boston, MA: Beacon Press, 1955.
- [7] E. Levitt, & S. Conen, "Attitudes of Children toward Their Handicapped Peers", *Childhood Education*, vol. 52, pp. 171-173, 1976.  
DOI: <https://doi.org/10.1080/00094056.1976.10728292>
- [8] H. Y. Kim, & K. S. Kim, "Social Prejudice in the Mothers' and Young Children'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9, no. 3, pp. 131-151, 2010.
- [9] Y. G. Chu, "A Study on a Change in Speci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2, no. 2, pp. 175-193, 2008.
- [10] Y. S. Sung, & K. C. Ki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1, pp. 257-276, 2017.  
DOI: <https://doi.org/10.22155/JFECE.24.1.257.276>
- [11] J. W. Kim, "Critical Review o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461-489, 2015.
- [12] B. Y. Lim, "Aesthetic Approach to Postmodern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3, no. 4, pp. 207-203, 2005.
- [13] R. S. Bigler, & L. S. Liben, "Developmental Intergroup Theory: Explaining and Reducing Children's Social Stereotyping and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3, pp. 162-166, 2007.  
DOI: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7.00496.x>
- [14] M. W. Apple, *Ideology and Curriculum* (3rd Ed.), New York, NY: Routledge, 2004.
- [15] P. G. Ramsey,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nd 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8.

- [16] M. S. Ko, & Y. S. Lim, "The Effect of Anti-Bias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about Sex and Disabiliti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7, no. 3, pp. 55-68, 2008.
- [17] L. R. Williams, "Curriculum Making in Two Voices: Dilemmas of Inclusion in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6, pp. 303-311, 1991.  
DOI: [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57-2](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57-2)
- [18] M. Y. Kim, *Child Development*, Seoul, Jung Min Sa, 2010.
- [19] J. S. Lee, & H. K. Kim, "Report of Research Trend in Children's Anti-bias Education based on Family Syste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3, pp. 131-154, 2008.
- [20] Y. H. Choi, & S. H. Lee, "Anti-Bias Education for Social Inclusion betwee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ee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0, no. 2, pp. 1-26, 2004.

---

**정 유 리**(Yu-Ri Je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교육

---

**권 귀 엮**(Kye-Yum Kwon)

[정회원]



- 2002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교육